

진종오, 코카콜라 체육대상 최우수선수상

한국 선수 사상 최초 올림픽 사격 종목 3연패 달성

진종오(38·kt)가 코카콜라 체육대상 최우수선수상을 거머쥐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마추어 스포츠 시상식인 '제22회 코카콜라 체육대상'이 14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소공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코카콜라 체육대상'은 1995년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기획한 아마추어 스포츠 시상식이다.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국내 스포츠의 입지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자들의 업적을 기린다.

시상식에는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둔 금메달리스트들과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높인 스포츠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리우올림픽을 빛낸 선수들이 다시 한 번 감동을 전했다.

한국 선수 사상 최초로 올림픽 사격 종목 3연패를 달성한 '사격황제' 진종오가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진종오는 리우올림픽에서 위기의 순간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초반의 실수로 탈락 위기를 겪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집중력으로 역전승을 선보여 한국 선수 사상 최초로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사격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 올림픽 종목 3연패를 달성했다.

진종오는 "운동을 시작한지 정확히 22년이 됐다. 공교롭게 코카콜라 체육대상도 22회째라 더 기분이 좋다. 올림픽을 4번 나갔다. 오래 하다보니 좋은 상을 받게 됐다.

다.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리우올림픽 때 초반에 부진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른 선수들에게 경기가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리우올림픽 펜싱 에페 금메달리스트 박상영과 리우올림픽 여자 양궁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 2관왕에 등극한 장혜진이 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전 종목을 석권한 양궁남녀대표팀(구본찬, 김우진, 이승윤, 기보배, 장혜진, 최미선)이 우수단체상을 받았다.

리우올림픽 한국 여자 태권도 49kg급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한 김소희와 한국 피겨의 미래 차준환이 신인상을 수상했다.

한국 패럴림픽 수영 역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한 조기성은 우수장애인선수상을 받았다.

유승민 IOC 선수위원은 공로상을, 양궁대표팀의 문형철 감독은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후배 스포츠 선수들을 축하하기 위해 대한민국 마라톤의 영웅인 황영조와 이봉주, '도마의 신' 양학선 등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의 위업을 달성한 스포츠 영웅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후배 선수들을 축하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응원했다.



사격선수 진종오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회 코카콜라 체육대상'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김대는 전북축구협회장,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

김대은(사진) 전북축구협회장이 대한체육회 체육상을 수상한다.

14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대한민국 체육을 빛낸 유공자들에게 수여하는 '대한체육회 체육상' 우수상(공로 부문) 수상자로 김대은 전북축구협회장이 선정됐다.

김대는 회장은 2017 FIFA U-20 월드컵 개막전 개최지로 전북을 유치하는 데 적극 노력한 것을 인정받았고, 각종 국내외 대회 및 친선경기 유치에 큰 힘을 쏟는 등 전북축구발전을 위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 김 회장과 함께 군산산교 야구팀과 이리여고 펜싱팀·남원체육회·진안군청 역도 최병찬 감독 등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도 체육회 관계자는 "체육상은 체육인의 사기진작 및 대한민국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라며 "전북에서 최다 수상을 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은 오는 22일 서울 올림픽 파크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승부조작 사실 알고도 트레이드 한 NC '무혐의'

의정부지법 형사부(부장검사 신승희)는 소속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고도 트레이드 한 프로야구 NC다이노스 구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단의 단장과 운영본부장이 신생구단 선수지원방안에 따른 선수영입절차를 이용해 신생팀 KT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고 한 혐의에 대해 이들이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선수영입절차(특별지명절차)가 일반적인 선수계약의 양도와 그 성격을 달리해 시기적외의 고지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NC 시절인 2014년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던 송치원 이성민(롯데)에 대해 NC가 이성민의 승부조작 가담 사실을 알고도 특별지명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신생팀 kt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되었던 송치원.

이성민은 2014년 11월 kt로 이적한 뒤 이듬해 5월 롯데로 트레이드됐다.

/김민근기자

3연승 질주 맨시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위 도약

본머스와 경기 2-0으로 승리... 1위 첼시와 승점 7점차

맨체스터 시티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위 고지를 밟았다.

맨시티는 14일(한국시간) 영국 본머스의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2017 EPL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2-0으로 이겼다.

3연승을 질주한 맨시티는 승점 52(16승4무패)로 토트넘 핫스파(14승8무2패·승점 50)를 따돌리고 2위로 올라섰다.

선두 첼시(19승5무3패·승점 60)와는 7점차다.

맨시티는 가브리엘 헤수스와 라힘 스틸링, 트로이 사네로 최전방을 꾸렸다.

맨시티는 전반 15분 만에 헤수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전반 19분에는 2대1 패스에 수비 라인이 무

너지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맨시티는 전반 26분 스틸링의 슈팅 골대를 때리면서 선제골 기회를 놓쳤다. 1분 뒤 아야 투레의 중거리 슈팅은 골문을 살짝 벗어났다. 아쉬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전반 28분 스틸링이 측면 크로스를 오른쪽으로 밀어넣었다.

후반 들어 본머스의 반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낸 맨시티는 후반 24분 세르히오 아게로의 골로 격차를 벌렸다. 승기를 잡은 맨시티는 남은 시간을 실점없이 보내며 승리를 확정했다.

본머스는 승점 26(7승5무3패)으로 14위에 머물렀다.

/김민근기자



스페인 국왕컵 결승, 비센테 칼데론서 개최

2016~2017시즌 스페인 국왕컵 결승전 장소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구장인 비센테 칼데론으로 결정됐다.

스페인축구협회는 FC바르셀로나와 데포르티보 알라베스가 맞붙는 올 시즌 국왕컵 결승전을 5월28일(한국시간) 비센테 칼데론에서 치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바르셀로나는 8만명 이상이 입장 가능한 레알 마드리드의 홈 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결승전을 치르고 싶어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경기장 보수 작업을 이유로 들었지만 라이벌 바르셀로나가 우승할 수도 있는 경기를 위해 안방을 내줄 수 없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해에도 세비야의 결승전 장소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를 희망했으나 미국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공연과 날짜가 겹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바르셀로나는 알라베스를 상대로 3연패에 도전한다. 1921년 창단한 알라베스는 첫 정상상을 노린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